

# 환희와 눈물의 두 세상입니다

나는 열일곱의 어린 나이에 병든 부모들을 살리려고 박정희 《정권》의 《경제부흥을 위한 해외인력수출》과도를 타고 고향이 있는 다도해를 뒤에 남긴채 대양건너 저 멀리 도이칠란드로 간 호부살이를 떠났었다.

그런 내가 근 반세기만에야 백발이 되어 고국땅을, 그것도 떠나온 남녘땅이 아니라 나에게 생의 희망과 조선민족의 자부심을 안겨준 삶의 기둥, 마음의 고향인 북녘의 평양을 찾았다.

조국을 방문하면서 내가 특별히 감동을 받은것은 송도원백사장에 펼쳐진 환희로운 모습이었다. 정말 감동없이는 볼수 없는 장면을 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쪽에서는 대형객객선침몰로 인한 대참사소식이 전해졌다.

송도원백사장의 환희와 진도앞바다의 눈물, 너무도 대비되는 판이한 두 현실은 나에게 참다운 조국, 민족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안겨주었다.

나에게 있어 또 하나의 충격으로 되는 그 확신을 이렇게 글에 옮겨본다.

나는 지난 4월 21일 평양에 오게 되었다. 숙소인 고려호텔에서 저녁식사후 TV를 켜니 방송원의 격조높은 목소리가 울리는 속에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를 돌아보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화면을 짝 채우고있었다.

오래동안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낸 직업적타성이라고 해야 할지 아이들의 아영소를 돌아보시는 김정은원수님의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은 나의 온넛을 순간에 사로잡았다.

우리가 1년을 교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고, 이렇게 아영소를 개진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여 이곳에서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고 하신 그이의 말씀은 자자구구 나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10여일이 지난 후 나는 TV를 통해 경에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또다시 커다란 격정속에 접하게 되었다. 현대적인 아영각들이 바다가공치와 조화되어 절경을 펼친 세계일류급의 아영소도 놀라웠지만 온종일 아이들속에 계시며 그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모습은 나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감동을 주었다. 인공잔디 펼쳐진

아영소의 새 경기장에서 전국소년체육경기대회 결승경기도 보아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으며 최상급의 모란봉악단 예술공연도 아영소의 극장무대에 그대로 펼쳐주시고 밤늦도록 아영소의 마당가에 서서여 러저로 쓰는 축포를 향해 환호를 터치는 아이들의 모습도 미소속에 바라보시는 원수님.

그이의 모습은 정녕 한없이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자애로운 스승의 모습이었다. 서방세계가 억측했던 조선의 《제4차 지하핵시험》보다 더 큰 진원이 되어 온 세상을 들뜨아놓은 아이들의 행보를 겨운 웃음소리는 나의 온넛을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로 이끌었다.

나는 격양된 흥분을 안고 그달음으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를 찾았다. 내가 본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는 수십년간 꿈속에서만 그려보던 아이들의 리상향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천국이었다. 아영소에 꾸러진 모든 건축물들은 세계일류급이고 그것이 하나로 조화를 이룬 아영소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족의 환상그림과도 같았다. 나는 지금껏 동유럽의 《전로아동센터》(《오개안아영소》)와 《미즈라》아영소, 어린이체육아영소(스빠르파)며 아시아의 《나이람람》국제어린이아영소도 다녀보았지만 이런 훌륭한 아영소는 처음이었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인간의 가치마저도 돈에 의해 결정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온 나는 습관적으로 아영소의 투자비용을 추산해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융장함에 움츠러들고 세부의 섬세성에 열이나가 나의 필산능력과 상상력으로서는 도저히 그 답을 찾을수가 없었다.

나의 심정을 알아차린듯 동행한 녀성일꾼이 미소를 지으며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에 깃든 절세의 위인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으로부터 흰모래물에 붉은 해당화향기가 넘치는 명사십리와 세면이 푸른 소나무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송도원에 감싸여 마치도 공작새가 긴 꼬리를 꼭 편것 같다는 동해의 명승 원산시, 여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현지지도의 발자취를 새기신것은 지금으로부터 55년전인 1959년 6월이었다. 미래가 강요한 전쟁의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원산시를 하루빨리 복구하여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며 대한 과업을 주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때 벌써 송도원백사장에 아이들을 위

한 아영소를 큼직하게 지휘줄것을 직접 맡기하시였다. 온 나라가 어디 가나 복구건설로 들끓으며 한창의 벼들, 한g의 세멘트가 귀중할 때였지만 그이께서는 포화여 그슬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나래부터 달아주라고 하시며 아영소건설을 위한 막대한 국가자금을 툭 떼어주시였다.

그후 1961년 9월 30일 강원도 일대를 현지도하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새로 훌륭히 일떠선 송도원아영소를 찾으시여 아영소자리가 참 명당자리라고 하시면서 이 송도원이야 참 좋지! 옛날에는 돈있는자들이 독점한 퍼서지였지, ...이 좋은 곳에서 우리의 어린것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야지 라고 하시면서 매우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 한 일꾼이 술밭도 백사장도 좋고 바다는 수심이 얕아서 위험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달리 봐야하라고 아끼고있었는데 수상동지께서 여기에 소년단아영소를 지어주라고 하셔서 이렇게 지었습니 다라고 말씀을들었다. 그 일꾼의 이야기를 웃음속에 들어주시던 수령님께서는 제일 좋은 자리를 어린이들에게 준것은 참 잘한 일이요, 그걸 누구에게 주겠소, 제일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하요, 제일 좋은것을!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제일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라는 아버지수령님의 아이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역력히 기둥으로 박아세우고 1960년 8월 17일 첫 아영의 문을 연 송도원아영소는 그후 절세위인들의 국친한 보살핌속에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더더욱 융장화려한 자태를 드러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미제별전이 치렬하였던 1990년대 초 늘어나는 수요와 발전하는 시대적추세를 앞질러 이전의 아영소건물을 헐고 바다우에 두둥실 떠있는 큰 함대를 방불케 하는 1천여명이상의 수용능력을 가진 새 아영각들과 시설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워주시였다.

1993년 3월,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던 그 엄혹한 시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를 찾아주시였다. 그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현대적으로 잘 꾸러진 아영소를 기쁨속에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결성하는 난관과 시련을 융합히 이겨내며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나가는 중요 한 목적으로 바로 후대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마련해주자는데 있느니 당의 의도를 잘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눈앞에 닥쳐올 엄혹한 전쟁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 군 최고사령관이 아이들이 뛰놀게 될 아영소건설장을 찾은 경이적인 사실은 세상에 돌도 없는 선군의 보검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가꾸어주시려는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펼쳐실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미래사랑의 전설이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우리 후대들에게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이곳 아영소를 찾아주시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를 전세개 모든 어린이들이 누구나 다 와보고싶어하는 세계일류급의 아영소로 더욱 현대적으로 꾸리도록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참으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그대로 비껴있는 사랑의 궁전이며 온 세상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천사들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다.

동행하였던 녀성일꾼이 들려준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의 빛나는 연혁사는 그야말로 아직까지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미래사랑의 대서사시였고 세계가 가늠할수 없는 조선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절감하게 하는 명쾌한 해답서였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의 《투자액》에 대한 답을 찾을수 있었다.

《후대들을 사랑하라!》이 어엿글자에 천만금에도 비할수 없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의 투자액이 현시되어있고 아이들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무한대한 《투자액》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후대관에 의하여 태어나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보검에 의해 지켜졌으며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새 세기 아이들의 락원으로 솟아난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는 조선의 밝은 미래를 무궁도록 비껴안은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위대한 기념비이다. 송도원의 푸른 청송을 붓삼아 동해의 푸른 물을 먹삼아 나는 새기의 하늘가에 이렇게 쓰시었다.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거든 아이들의 웃음과 환희가 만발하는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로 오시라고!

무궁번영할 내 조국의 앞날을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에

서 그려보는 나의 가슴속에 기쁨만이 자리잡고있을것이 아니다. 북부조국의 하늘땅에 어린이들이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있을 때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남조선의 바다에 과연 어떤 참혹한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가.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참사의 기본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열일곱나이의 꽃망울들, 고등학교 학생들이였다. 지금도 삶과 죽음의 계선에서 온갖 애발할 바 했을 어린이것들의 처절한 모습이 눈앞에 안겨오고 학부모들의 퍼러지는 곡성이 귀가에 울려오는듯하다.

가라앉은 배에서 탈출해보려고 유리창문을 허비고 또 허빈 아이들의 손은 빠져 하얗게 드러나고 살점들이 짓이겨져 형체도 알아볼수 없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몸뚱이뒹굴었는지 그렇게까지 되였는지.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그 어린것들은 자기가 죽음에 이를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것이다. 아마 《세월》호에서 마지막으로 울린 《기다라라》는 말을 순진하게 믿고있었을것이다.

《세월》호, 그것은 운항의 탓을 올릴 때부터 불행운 예고하였 다. 아이들은 만재한 화물우에 덧쌓인 《인간화물》에 불과하였 다. 하기에 선장과 선원들은 침몰하는 배에 그들을 남겨둔채 도망쳤고 당장 구원의 손길을 뻗칠것만 같던 직승기도 군함도 그들을 외면하였다.

거꾸로 뒤집힌 배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기까지 2시간. 그 촌각을 다루는 속에서도 구조독점권을 움켜쥔 간상배들은 살아숨쉬는 어린 생명들을 살인장부에 버섯이 올려놓고 흥정판을 벌렸 다. 아직 피우지 못한 꿈을 안고 쓰러진 꽃망울들과 생애같은 자식들을 줄지어 잃은 부모들의 아픔을 외면한 박근혜는 《사파》는커녕 눈을 한방울 흘리지 않았고 청와대를 찾은 피해자가족들마저 매물차게 쫓아버렸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물론 미국의 《뉴욕타임스》, 《BBC》 등 세계의 언론들은 《세월》호의 어이없는 사고와 제2《유신정권》의 리해할수 없는 무능력과 철근토록 비껴안은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찾는 피해자가족들을 표시하는 보도들을 연속 내보내고있으며 제도, 재미교포들은 《박근혜는 인간이 아니라 살인마》, 《아이도 낳아주지 못한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구호를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다.

애러린 꽃망울들을 수백명이나 검푸른 날바다에 수상시킨 박근혜 《정권》을 저주하며 내 고향과 가까운 진도는 몸뚱이치고있

다. 눈물과 울분의 이수라장으로 변한 진도앞바다를 그려보는 나의 눈앞에는 열일곱 꽃나이에 고향땅을 떠나 지역만리에서 고아마냥 헤매이던 불우한 지난날이 우뚝이 떠올랐다. 나역시 진도의 날바다에 버려진 꽃망울들처럼 이역땅에 내동댕이쳐진 인생이였다.

어찌보면 진도의 날바다에 수장된 꽃망울들은 《입양》과 《인력수출》의 미명하에 박정희가 이국땅에 내버린 꽃망울들의 분신을 일지도 모른다. 어제날 박정희 《정권》이 남녘땅에 뿌리를 둔 수천수만의 꽃망울들을 가지채로 몽청 깎여 이역땅으로 팔아버렸다면 오늘은 박근혜 《정권》이 그뒤를 이어가고있다.

소위 《녀성정치》를 운운하며 《전면무상보육》, 《은종일학교》, 《무상급식실시》 등의 화려한 선거공약을 내들었던 박근혜가 집권후에는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해외입양은 한해에 수십억US\$를 벌수 있는 좋은 돈벌이수단》이고 《부모없는 어린이는 사름을 위한 최상의 방도》라고 떠들고있다. 오늘 남녘땅에서는 21세기 현대판 《노예수출》을 강요하는 《입양특례법》, 《입양의 날》과 같은 제도적장치들이 더욱 활개치고 그 허울밑에 수십 만명에 달하는 부모없는 고아일미 꽃망울도 채 피우지 못한채 한명당 평균 3만 8 000US\$로 이역땅에 물건짝처럼 판매되고있다.

현재 남조선의 어린이이보육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성원국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남조선을 《어린이이보육후진국》으로 비난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말 박근혜는 도이칠란트에 날아가 북의 《영유아》요, 《취약계층》이요 하면서 마치도 어린이문제가 관심에 있는듯이 력설하였으나 그로부터 한달도 못되어 진도의 날바다에 300여명의 꽃망울들을 수장해버린 살인 《정권》이 되어 세상사람들의 조소와 분노를 자아냈다. 남쪽에서는 꽃망울들을 대하는데서 《유신》독재자나 오늘의 박근혜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것은 그 위정자들에게 후대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사랑이 없기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1964년 12월 박정희가 구결박을 차고 서부도이칠란트에 날아들었던 때의 일을 잊을수가 없다. 그때 박정희는 험악한 지하막장에서 매일마져 기약할수 없던 쉼된 란부들, 전염병 병동들에서 서양인들의 발들까지 깎아야 하는 치욕을 강요당하는 애러린 간호원들의 피곤했은 작은

돈주머니마저 털어내려고 《꽃사로 변한 진도앞바다를 그려보는 나의 눈앞에는 열일곱 꽃나이에 고향땅을 떠나 지역만리에서 고아마냥 헤매이던 불우한 지난날이 우뚝이 떠올랐다. 나역시 진도의 날바다에 버려진 꽃망울들처럼 이역땅에 내동댕이쳐진 인생이였다.

언제인가 우리 재도이칠란트동포들이 일본땅에 세워진 조선학교들에서 나뉘기는 공화국기가 하도 부러워 한가닥의 희망을 안고 박정희에게 자그마한 동포학교라도 운영하게 푼돈이라도 용자해줄것을 청탁하는 편지를 보낸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재도동포들에게 돌아온것은 알박한 돈봉투도 회담편지도 아니고 《용공분자수배장》이였다. 박정희는 우리 재도동포들이 모국여교사양성을 위해 서울에 보낸 학생들마저 북의 《간첩》으로 몰아 칠창속에 가두는 야만행위를 감행하였다.

오늘날 수백만에 달하는 남조선 출신 해외동포들이 고국땅을 영원히 하직하고 고향몬 타향살이를 하고있는것은 인간의 정도, 미래에 대한 사랑도 없는 박정희에 대한 환멸에서 비롯된것이며 이것은 또한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우리 민족사에 남긴 최대의 죄악이라고 할수 있다.

인자가 유전되듯이 어제날에는 박정희가 수십만의 애러린 아이들을 이국땅에 내버렸다면 그 비록은 바통을 이어받아 오늘은 박근혜가 현대판 인신매매와 노예수출을 장려하고있으며 얼마든지 살릴수 있는 수백여명의 애러린 꽃망울들을 모두 죽이며 미래를 짓밟고있다.

진도의 참사는 미래에 대한 박근혜의 가혹한 무시와 방관, 극단한 홀시가 가져온 인재, 관재이다. 미래를 외면하고 천시한자에게는 앞날이 없다.

미래사랑이 없는 남쪽에서는 제 2, 제3의 《세월》호참사가 계속될것이다. 나는 남녘의 하늘가에 새기고싶다.

《남조선은 미래가 없는 사회, 눈물의 세상입니다.》라고.

조국을 떠나면서 송도원백사장에 펼쳐진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진도의 날바다에 버려진 눈물을 두고 나는 생각해보았다.

태양의 빛깔이 있어 꽃들이 만발하듯이 인민의 참된 령도자의 따사로운 품이 있어 민족의 창창한 미래가 기약된다. 민족의 무궁장창한 미래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악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해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 내 조국에 있다 는것이 길지 않은 조국광문의 나날 내 심장에 새긴 철리이다.

재유럽동포 한 랑욱

## 시집갈 생각도 잊게 하는 로동자호텔

《사실 우리 어머니는 날 보고 빨리 시집을 가라고 독촉하곤 했습니 다. 리유는 아무리 합속이 좋다 해도 제 집에서 생활하는것만 하겠나! 하는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일떠선 우리 합속에 와보고는 시집갈 생각 아예 말고도 많은 천을 짜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 3일 새로 일떠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속에 입사한 한 합속생처녀가 취재갔던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이다.

그 처녀만이 아니라 집을 들고 입사하는 모든 방직공처녀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실남실 넘쳤다. 딸의 내성들이 넘쳐스러울듯 먼곳에서 달려온 부모들도 새 합속을 돌아보고는 로동자합속이 아니라 로동자호텔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직업이 기자인데도 여러곳을 많이 돌아본 나로서도 그 말이 시통한 표현인 듯싶었다.

살림도구들이 일식으로 갖

추어진 전기난방화된 방들과 녀성로동자들을 어서 빨리 멋쟁이로 내세우고싶은듯 활짝 문을 열어놓은 정갈한 미용실, 삼점과 도서실, 무릉도원을 방불케 하는 공민에서도 사회주의문명을 누리게 된 로동자들의 기쁨이 한껏 흘러넘치였다.

저 방직공처녀들에게 이보다 훌륭한 선물이 어데 있겠는가. 언제인가 어느 한 책을 보니 사람이 자신의 로동력을 팔아 임금을 받는 리유는 일수 있는 보급자리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인간의 존엄있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렇다면 새로 일떠선 로동자합속이 방직공처녀들의 로동의 대가로 차례진 보급자리인가. 경제적타산으로서 는 도저히 저런 합속을 건설하여 평범한 로동자들에게 안겨줄수 없다. 적은 투자를 들어 보다 많은 리유를 얻는것은 리윤추구와 자본축적의 어길수 없는 법칙이기에.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평범

한 방직공처녀들을 위해 군인들을 동원하여 1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처렇듯 훌륭한 합속을 건설해주었고 5.1절에는 성대한 로동자연회도 차려주었다.

세상에는 로동자들의 고향을 짜내어 극소수 재벌들이 향락을 누리는 궁전과 호텔은 많아도 이런 로동자호텔, 로동자궁전은 공화국밖에 없으며 로동자연회라는 말도 이 나라에서 들을수 있는 말일것이다.

새로 일떠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속이야말로 로동자들을 위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의 궁전이고 행복의 집이며 정다운 보급자리이다.

그러나 자신의 로동력을 아무리 강그리 팔아도 보급자리는커녕 인간의 존엄조차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구상에 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

한지맥을 이은 남조선의 로동자들도 그런 불행한 처지에 놓여있다.

얼마전 25번째 회생자가

발생한 쌍룡자동차문제, 지난 4월 30일 전북북스로 동자의 투신 사건, 5년 넘게 지났음에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통산참사문제, 최근 두달사이 여 8명의 로동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그룹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남조선에서 로동자는 대기업의 리윤추구를 위한 한갓 도구로밖에 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남녘의청년로동자가 온몸을 불에 태우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웨쳤건만 로동자들의 불행과 재난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고있다.

지금도 온 세계를 분노케 하고있는 《세월》호참사의 비극적주인공들도 다름아닌 병법한 로동자의 자식들이다.

《1%의 기득권을 위해 무나 비롯한 죽음을 제단우에 올려지고있다.》, 《그 아이들이 로동자의 자식들이기때문에 더없이 슬프다.》 이런 웨침이 지금 남조선 각지에서 울려퍼지고있다.

그렇다면 남조선에서 로동자는 어떤 사람인가.

얼마전 경기도 평택비정규로동생터가 평택지역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동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눈길을 끈다.

《로동자는 □다》는 질문을 던지고 □에 답을 적어넣는 방식이였는데 가장 많은게 《힘들다》였다고 한다. 이밖에 《거지》, 《장애인》이라는 답변도 있었고 《일개미》, 《돈버는 기계》, 《갈질인간》, 《독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고 한다.

공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팔난다고 했다. 이것이 남조선사회의 적라라한 거울이다. 얼마나 로동자들이 고평과 학대를 받고있으면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하겠는가.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